

오늘 수능...이것만은 꼭 체크

# 췌! 밤 늦게까지 시험보는 곳도 있어요

광주 선우학교 등 장애학생들 밤 9시43분까지 특별관리시험

15일 광주 선우학교, 여수고 등 전남지역 15개 고교 주변에서는 밤 10시까지 소란을 피워선 안 된다. 이들 학교에 마련된 특별관리 시험실에서 장애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시험을 치르며 때문이다. 이날 일반 수험생의 시험은 오전 8시40분-오후 5시40분까지 치러진다. 하지만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최장 밤 9시43분까지 수능시험이 실시된다. 경증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

험생은 오후 8시20분에,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은 밤 9시43분에 시험이 종료된다. 광주에서는 중증시각장애 2명, 뇌병변 11명, 경증 시각장애 5명, 중증 청각장애 5명, 기타 장애 수험생 7명 등 모두 29명이 선우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전남에서는 장애 수험생 21명이 여수고·순천고 등 1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 가운데 장애 특성에 따라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시험장이 마련된 곳은 여수고·순천제일고·고흥고·금성고·해룡고·광양백운고 등 6개 고교이며, 이곳에서 시

험 보는 수험생은 9명이다. 광주와 달리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이 없어 오후 6시57분 종료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정상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지만 방법은 다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점자 시험지로 문제를 풀며 장애 유형별로 부여된 시험 시간도 다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시험시간이 길고 뇌병변·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1.5배 길다.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하는 것은 같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앗! 지진·화재 때 맘대로 교실 이탈 안돼요

감독관 지시 따라 움직여야 지각 땀 112·119 도움 요청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이다. 재난 상황임을 직감했다라도 교사본부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 없이 수험생 판단으로 교실을 나가면 '시험포기'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교육부 매뉴얼을 보면 지진의 경우 진동 크거나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게 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 때는 시험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중요하거나 시험장 건물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험을 중지하거나 책상 밑으로 수험생을 대피시킬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거나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는 상황으로, 책상 밑으로 잠시 몸을 피한 뒤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때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상 시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장 시설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수험생들도 안정을 찾으면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진 진동을 느꼈다고 감독관 지시 없이 수험생 판단으로 자리를 뜨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진동이 끝난 뒤 시험 속개 여부도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이는 화재 등 다른 재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능일인 15일 아침 지각이다 싶으면 수험생들은 112 또는 119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과 소방부대가 112, 119차량을 통해 긴급 수송 작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날 물으로 나온 전남 수험생 197명

후배들 선착장서 뜨거운 응원 도교육청 1인당 7만원 지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전남 섬지역 수험생들이 일제히 물으로 나와 예비 소집에 참석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안 도초·안좌·외자·하의·조도, 완도 노화·금일도, 여수 금오도 등 전남 섬 응시생은 모두 197명이다. 신안 학생은 목포에서, 완도 학생은 해남에서, 여수 학생은 여수 육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날 아침 일찍 여객선에 오른 수험생을 위한 후배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는 여남고 학생자치회가 북과 팽과리를 치며 선배 수험생 24명을 환송했다. 수험생들은 포용을 나누며 후배들이 정성껏 준

비한 플래카드와 응원곡을 뒤로하고 물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섬 지역 수험생은 고사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묵은 뒤 응시한다. 시험이 끝나면 대개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일부 학교는 수능일 다음 날 대학 방문 등 체험학습 일정을 준비하기도 한다. 도교육청은 교통비와 숙박비로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시군은 숙박업소 등 점점으로 수험생들의 안전을 살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지에서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섬 지역 수험생을 위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같고닮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구제역 방역훈련 14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구제역 방역훈련'에 참가한 광주시와 5개구청 방역관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자리 문제 말다툼하다 차로 상대 노점 들이받아

담양경찰은 14일 장사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차량을 몰아 경정 노점으로 돌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20분께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으로 군남노점 영업을 하고 있던 B씨의 트럭을 들이받아 B씨 등 형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오전 군남 노점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A씨는 B씨 형제가 바카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

고배 풀린 말 3마리 도로 활보

강진에서 어둠이 내리겠는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고배 풀린 말 3마리를 잡느라 한바탕 소동. ○14일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10분께 말 3마리가 강진읍 시가지 일원을 돌아다니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된 직후 소방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고, 흥분한 말을 달래고자 인근 축산 농민까지 나선 끝에 별다른 사고 없이 말들을 모두 붙잡았다. ○주인을 찾지 못한 말들은 낮선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수소문 끝에 마구간을 탈출한 지 15시간 만에 주인을 다시 만났는데,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경북 김천의 승마장에서 강진의 한 농장으로 팔려온 말들이 탈출한 것"이라고 설명.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명 영장 청구

장외주식 거래 전문회사 대표 등

광주지검은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전문회사 P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회장 A씨를 4차례 소환조사했으며, "사기적 부정거래와 '무인' 투자거래 등 2가지 혐의를 놓고 수사를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면서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허위정보 등을 퍼트린 뒤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사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창원, 울산, 전주, 순천 등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주식거래, 대체투자, 크라우드펀딩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종합자산관리 회사다. 대표 A씨는 증권 전문 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올해 초에는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를 세우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배기가스 노출된 채 일하다 폐암

순천 환경미화원 2명 산재 인정

투병 1명 통보 다음날 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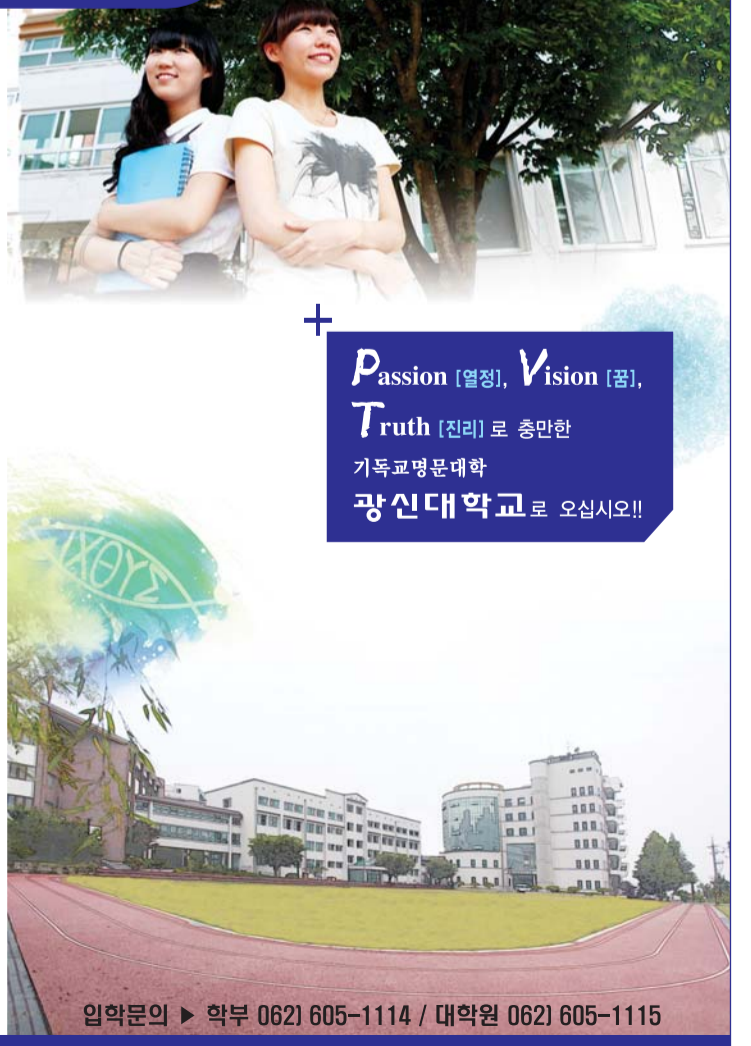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배기가스에 노출된 채 청소를 일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2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서모(61)씨와 황모(62)씨가 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됐다.

이들은 20년 넘게 거리에서 일하며 디젤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으며 올해 초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이들이 거리 청소를 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디젤 가스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년여 만에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황씨는 산재 인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숨졌다.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은 치료 기간 실업급여를 비롯한 치료비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서씨는 1990년 입사해 지난해까지 27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1996년 입사한 황씨는 2016년까지 21년간 일했으며 지난해 9월 폐암을 발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4000여명으로, 2015~2017년 3년 동안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